

제10회 여명의 날

남한에 온 북한이탈청소년의 감사와 성장 스토리



YEOMYUNG, 10 YEARS

여명 10년의 기적!

일시 **2014. 11. 21 (금) 저녁 7시**

장소 **세종대학교 대양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

02-888-1673~4 www.ymschool.org www.facebook.com/ymschool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정주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보물”이라 하였으니 “네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석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나 지식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나 예술적 재능... 등등을 보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이 세상을 말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하늘”은 이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하나님나라와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네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너를 위하여 쌓되 이 세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나라와 그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그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teaching), 전파하고(preaching), 고치신(healing)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마 28:19,20)입니다. 대사명은 선교명령임과 동시에 교육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저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입니다. 여명학교는 이런 일을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함께 후원하며 동참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YEOMYUNG, 10 YEARS

PROGRAM

개회	01	방현주 아나운서
기도	02	정주채 이사장
영상	03	10 Years History
합창	04	참 기쁜 날 외 1곡
تون차임	05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외 1곡
뮤지컬	06	미운오리새끼
학생 회고	07	졸업생 + 재학생
영상	08	나눔과 행복
후원약정의 시간	09	차인표
출연 및 공연	10	کم패션 밴드
다같이 합창	11	통일 마중 나가자

CONTENTS

정주채 이사장 인사말	01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프로그램 · 목차	02	YEOMYUNG, 10 YEARS
이흥훈 교장 글	03	여명 통일학교 만들기 I – AFTER 10 YEARS
조명숙 교감 글	05	여명 통일학교 만들기 II – 독일연수기
졸업생 스토리	06	제7회 여명학교 졸업생 정봉철
THANK YOU	07	여명학교 후원해주신 분들
후원자 스토리	08	여명학교 영어강사 박윤희
여명학교 학생 작품	09	오은정 시, 안수인 그림
후원약정서	10	

✦ 여명 통일학교 만들기 I - AFTER 10 YEARS ✦



지금 대한민국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여명학교에서는 매년 독일 아데나워재단의 협력을 받아 독일 통일 관련 전문가 초청, 여명학교 교사의 구 동독지역 교육현장 방문 및 교육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육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쇄적인 국가이며 관련 서적도 적어서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이루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독일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이룬, 우리가 참고할 독일 같은 국가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미리 북한에 대해 배우고 함께 "작은 통일"을 이루어볼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명학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10년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여명통일학교를 만드는 꿈을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따뜻하게 보호받으며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행복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학교는 통일 후 북한 학교의 모델학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체제 전환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과내용과 교육방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령에게 충성하는 사회주의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크게 왜곡된 교육내용을 학습했고, 당이 정해준 내용을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달달 외우는 '원문통달식 교육'과 '교육과노동의 결합'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에 적응되었던 학생들이 체험과 토론 등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유롭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양성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대행군 이전의 북한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부진을 책임 있게 지도하며 공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남한 적응에도 어렵고 사교육비를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여 자녀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여 남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 이후의 북한교육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계층간 심각한 차별이 따를 것이기에, 학교가 책임지고 충분히 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합니다.

통일한국의 북한학교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인내심 그리고 북한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남한출신 교사와 북한출신 교사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함께 가르치는 학교를 꿈꾸어 봅니다. 통일 후 북한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남북한 교육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교육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책임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명학교의 다음 10년을 내다보며 학생들이 마음껏 뒀 운동장, 책과 친해질 도서관,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할 실험실, 특별실,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담실과 휴게실 등이 있는 새로운 교육 공간을 꿈꾸어 봅니다. 남한출신 교사와 북한출신 교사가 더불어 통일 한국의 교육을 준비하는 연구모임도 가능한 환경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동독지역의작센안할트주 교육부 차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 이전에 탈동자들을 통해 미리 통일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통일 이후에 서독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동독에 이식하고자 한 것이 후회된다."고 두 가지 후회되는 점을 언급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 동포들이 새로운 사회를 배우며 북한의 교육을 새롭게 주도해 가는 주체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명통일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에 기여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기적 같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다음 10년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명 통일학교 만들기 II

조명숙 교감선생님의 독일 연수기

얼마 전 여명학교에 통일부 장관님이 다녀가셨다. 그때 몇몇 학생이 장관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해 자존감이 높았던 ○○이가 장관님께 질문했다. “통일 후 북한을 돕겠다고 간다 해도 북한 인민들이 우리를 받아 줄까요?” 조심스럽고 진정성을 담은 그 말에 장관님과 나 그리고 어른들은 깜짝 놀랐다. 진심으로 북한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그들이 가장 아파한 때에 풍요로운 남쪽에 있기에 미안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북한 인민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다. 혹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을까 봐 미리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여명의 아이들이 좋다.

지난 여름 독일 통일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연수를 기획하고 있었다. 때마침 아데나워재단에 한 연수단이 독일 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사회교사, 역사교사와 함께 16일간 동독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통일은 힘들었지만 감사한 선물이었다고 고백했다. 너무 달라 힘들고 지쳤으며 때론 서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독 형제들을 사랑했기에 수고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의 동독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동독 출신의 교사들은 통일되면 북한에 가려 한다는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했다. “당신들이 가지 말고 북한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와서 아무리 겸손하게 들어주려고 해도 그 마음 저변에는 동독사람들보다 우월적 위치에서 가르치려 한다는 듯한 태도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섭섭하게 한 것이다. 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희의 목적은 북한 형제들을 돕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돕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할까 봐 걱정되어 먼저 통일을 여러분께 배우러 온 것입니다.” 이에 동독 선생님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들이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베풀고 싶은 진정한 자유를 그들이 만들어 가고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득 여명의 학생들이 아주 고맙게 다가왔다. 비록 우리가 미련하여 초청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비하러 미리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통일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느끼며 행복하고 심장이 뛰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통일이 되면 여명의 학생들이 곳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통일 한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졸업생 스토리

제7회 여명학교 졸업생 정봉철 (대림대 호텔조리학과 재학중)

저에게 학교는 그림의 떡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중국에서는 언제 강제복송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는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머니와 돌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를 돌면서 잡다한 일들을 해주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어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의 음식을 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해준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정성이고 정성은 사랑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맛이 있다고 하신 그 맛은 바로 사랑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호텔조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전공을 살려 후배들에게 음식의 사랑의 힘을 전하고자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동문들과 점심급식봉사로 삼계탕을 선물했습니다. 여명학교 후배들은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할 수 없어서 남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친구들이기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잘 먹어야 할 나이에 먹지도 못해서 체력도 안 따라주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우겠다는 열정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여명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기에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처음 음식을 했을 때처럼 통일이 한국이 왔을 때 북한에서 외식창업을 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음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The image features a testimonial from Park Eun-hee, an English teacher at Yeonghyang High School. On the left, there is a portrait of Ms. Park, a woman with dark hair tied back, wearing a blue sweater over a black turtleneck. To her right, the title "후원자 스토리" (Volunteer Story) is displayed in a large, bold, blue font, preceded by a small orange star icon. Below the title, the subtitle "후원자에서 영어강사로" (From Volunteer to English Teacher) is written in a smaller blue font. The main body of the testimonial consists of two paragraphs of black text.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how she was inspired by a book while waiting for a bus and decided to become a volunteer tutor. The second paragraph details her initial nervousness and the positive impact of tutoring, noting that it helped her overcome her shyness and improved her teaching skills. On the far right, a separate column of text in a lighter gray font reflects on the value of the experience, mentioning the importance of being a good listener and understanding students' needs. The entire page has a clean, white background with a subtle blue border on the left side.

후원자 스토리

후원자에서 영어강사로

여명학교 영어강사 박윤희

"언니, 이런 학교가 있어." 수년 전 버스 안에서 사촌 동생이 한 권의 책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학교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 학교는 여명학교이고, 책은 조명숙 교감선생님이 쓰신 <꿈꾸는 땅끝>이었다.

영화배우 차인표 주연의 영화 <크로싱>을 보고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힘껏 도우리라 마음먹고 있던 차에, 씌짓돈을 털어 후원을 시작했다. 얼마 후 썸머스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하여 처음 여명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됐다. 처음 만나던 그날의 두근거림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여학생들은 생각과 달리(?) 화장을 많이 해서 놀랐고, 남학생들의 세련된 헤어스타일도 너무 의외였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 순수

함이란 참으로 중독성 있는 순수함이었다. 아픔과 슬픔을 덮고 솟아나는 순수함...

썸머스쿨, 방과후교실, 윈터스쿨을 통해 '수업'은 나에게 '힐링'이 되었고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아이들의 얼굴이 첫사랑처럼 천장에 떠올랐다. 때마침 올 초 영어강사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강사로서 아이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거나 아이들은 순간순간 힘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너무 공부 안 하고 나를 걱정시키던 한 학생에게 잔소리를 해주려 맘먹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밥 먹다가 내게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담담히 나누며 복에 있는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공부'란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아이들과 영시를 읽고, 'You raise me up'이란 노래를 부르는 그 수업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으로 다가오는지 아프던 몸도 금세 회복됐다. 전철을 타고 오가는 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몸일 뿐 마음은 언제나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설렘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하다.



통일 마중 나가자



작사 오은정 (여명학교 졸업생) · 작곡 커피소년

새싹이 햇빛을 기다리듯
파도가 바람을 기다리듯
단풍이 가을을 기다리듯
통일도 기다리자
그렇게 통일도 기다리자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

샛별이 다른 별 마중하듯
바다가 뜨는 태양 마중하듯
복수초 다른 꽃 마중하듯
통일도 마중 가자
그렇게 통일도 기다리자
함께 통일 마중 가자



두만강 도하

- 꿈에 본 고향 -



그림 안수민 학생 (홍익대 회화과 입학 예정)

북쪽이 싫어 넘던 강, 두만강은 황폐했었다. 기억을 해리시켜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두만강으로 만들고 싶다.



여명학교 후원약정서



기본 정보

이름

휴대폰번호

자택번호

이메일

가입동기 · 추천인

신규 후원

월 약정금액 ☐ 2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기타 ()원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직업

주소 ☐ 자택 ☐ 직장

납부방법 ☐ 신용카드 ☐ CMS 신청 (자동이체 위임)

CMS 자동이체 납부

출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출금일 ☐ 15일 ☐ 25일

※ 잔액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익월 출금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현대카드 제외)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출금일 ☐ 15일 ☐ 25일

증액 후원

현재 후원금액에서 ☐ 1만 원 ☐ 2만 원 ☐ 기타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일시 후원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1-083896

예금주 - 사단법인 여명

본인은 수집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정기 후원에 약정하며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후원인

(서명)

※ (사)여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명학교는 후원자님의 수집된 개인정보를 후원 목적에 한해 활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남촌재단

 SÄMHUNG
CORPORATION LIMITED ESTABLISHED 1965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STATE STREET

 다비육종

 SJF 성주재단

 E-LAND RETAIL LTD.
(주)이랜드리테일

 KIM YOUNG MC